

대한민국 대통령

1981년 9월 21일

각 하,

본인과 내자는 각하 내외분께서 미구의 편리하신 시기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초청한 바 있습니다.

1982년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한.미 관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 확고하고 실질적인 한.미 우호협력 관계는 거의 모든 인간활동 분야에 공하여 그 역사가 장구합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및 지적인 유대가 양국에게 물심 양면의 지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는 데 대하여 각하께서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본인은 각하의 한국 체류가 하나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을 믿으며, 한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애로 열의를 다하여 환영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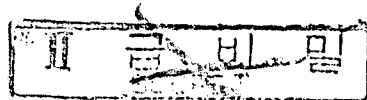
각하께서 본인의 방한 초청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시어, 본인과 내자가 내년 서울에서 각하를 영접할 수 있는 기쁨과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베풀어주신 각하 내외분의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하의 건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두 환

미합중국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각하



A2/10/119
High Review

0003

5

II ~~금~~ ~~비~~ ~~밀~~
SECRET

The White House
Washington

October 8, 1981

COPY

Dear Mr. President:

I have just received the two letters from you which were kindly delivered by you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 am highly appreciative of your optimistic assess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the U.S. and agree with it fully. I have heard very positive reports of your trip through the ASEAN countries, and thank you for the helpful role you performed during these visits.

I am highly appreciative of your kind invitation to visit the ROK during 1982, a highly symbolic year in term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As I think you are aware, I have not yet undertaken any elaborate foreign travel and am hesitant to do so until matters of first priority, such as stimulation of the economy, have been accomplished. My plans for 1982 have not yet been drawn up but please be assured that I am touched by your invitation and will give it the fullest possible consideration.

It was my pleasure to receive the credentials of Ambassador Lew last month. I am happy to see such a well-qualified man serving as your representative in Washington. With able men such as the Ambassador and Foreign Minister Lho in key positions, I view the future of our relations with great confidence.

Nancy and I recall with great pleasure your visit in February and the warm and friendly spirit which filled the White House at that time.

With warm personal regard,

Sincerely, 0004

Ronald Reagan

관리번호 2-1110

~~II. 기밀~~
CONFIDENTIAL
기밀
기밀

중 별

발신전보

번호: WUS-28196 일 시: 24 10 20
수신: 주미대사
발신: 장 관
제목: 레이건 대통령방한

8.30자 Newsweek 지는 백악관 측근을 인용, 레이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중 중공등 극동 출방길에 아국도 방문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는바, 동보도 확인 및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탐문 지급 보고 바람.

(미북)

직권으로 재 (유) 83 630
직위 사무관장 이시진 인

제1차안보: (인)

양고재	복미과	22년 8월 24일	남당 復	과장 復	국장	차관	장관
-----	-----	------------	------	------	----	----	----

예고 : 83.6.30.

~~II. 기밀~~
CONFIDENTIAL
발신시간 :

최종결재		점수	과장
기안자	이운복	검투필 (1983.6.30.)	

00053

의무부
82-1051

대 외 비

의 무 부

중 별

발신전보

번 호 : WCN-08/91 인 시 : 24/140
 수 신 : 주 캐나다 대사 (참조 : 북미과장)
 발 신 : 장 관
 계 목 : 레이건 대통령방한

레이건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중 극동순방길에 아국을 방문 예정이라는 8.30자 Newsweek 지 보도를 확인보고토록 지시하였음. (미북 - 이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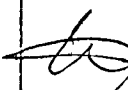
양	부	92	당	과	국	지	장
고	미	8	당	장	관	관	관
재	과	24	장	관	관	관	관
		일					

5

예 고 : 독후따기

받식시간 :

최종결재	
기안자	이운복

접수	과장
	

0076

복

대외비
외무부

작성전보

원본

관리번호 82-1134

번호: GAW -08142 일시: 240940 중별: 지급
수신: 차관 참조(사본): 주 미대사 (중계필)
발신: 장관
제목: 1982 PNIO 2 8-25 7:08

대: WGA -08129

테이건 대통령 방한 계획에 관한 대외 뉴스워크지포도와 관련, 백악관 또는 국무성의 공식 입장을 파악, 보고 바람.

(미일)

예고: 83-10-31-일반

차관보

공	82	담	당	과	장	국	장	차	관	장	관
관	보										

수신시간:

장관실	의전실	아프리카국	통상국	외연원		
차관실	아주국	국기국	영교국	B		
정차보	미주국	조약국	외문국	A		
경차보	구주국	정문국	총무과			
기획실	중동국	국경국	감사관실			

담	당	통	제	관
67	즈			

대외비

0007

~~III급비밀~~
CONFIDENTIAL

외무부

작성전보

원본

관리번호 82-1118

번호: USW -08280 일시: 241125 종별: _____
수신: 김석규 국장 참조(사본): _____
발신: 주미박원 2
제 목: _____ PNIO: _____

8-25 10:30

뉴스워치지의 테이건 대통령의 방한 보도에 관하여 한국과에서는 추측 보도라고 하나 대사님께서 명일(8.25) 홀드리지 차관보와 외차 약속이 있으므로 그때 재차 확인한후 공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고: 82. 12. 31. 일반

검토편(1983. 6. 30.)

예고문에 외거 일반문서로 재분류 1983. 6. 27 어명 /서지

공안	담당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람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수신시간:

장관실	의전실	아프리카	통상국	외연원		
차관실	아주국	국기국	영교국			
정차보	미주국	조약국	외문국			
경차보	구주국	정문국	총무과			
기획실	중동국	국경국	감사관실			

담당	주부	과장
101		

~~III급비밀~~
CONFIDENTIAL

A21213/

0008

9

~~III~~ ~~비밀~~
CONFIDENTIAL

외무부

작성전보

원본

관리번호 82-1134

번호: USW -08302 일시: 251620 종별:
수신: 장관 참 조(사본):
발신: 주미대사
제목: 테이건 대통령방한 PNI0: 9 8 2 8-25 10:58

대: WUS -08196

- 본직은 8. 25(수) 국무성 HOLDRIDGE 차관보와의 오찬석상에서 테이건 대통령방한 가능성에 관한 뉴스워크지의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동 차관보는 아직 국무성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지는 않으나 테이건 대통령이 명년중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으며 또한 방문시기도 미정이라고 하였음.
- 본직이 받은 인상으로는 동 차관보가 공식적으로는 테이건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확인 하기를 피하였으나 사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음. (미복)

김... (83 6 30)

예고: 83. 6.30. 일판

예고문에 의거... 제분류 1983 6 30

공	인	년	월	일	담	당	과	장	국	장	차	관	보	차	관	장
람	보	82	6	30	미	주	대	사	장	관	보	장	관	보	장	관

수신시간:

장관실	의전실	아프리카	통상국	외연원	B	✓
차관실	아주국	국기국	영교국		2	✓
정차보	미주국	조약국	외문국		P	✓
경차보	구주국	정문국	총무과			
기획실	중동국	국경국	감사관실			

담	당	주	무	과	장
CS	BO				

~~III~~ ~~비밀~~
CONFIDENTIAL

0009 10

관리 82
번호 -112

~~III 급 비밀~~
CONFIDENTIAL

의 무 부

중 별

발신전보

번호 : WLP-08125 일 시 : 261850
수신 : 장 관 (경유 : 주라스팔마스 총영사)
발신 : 차 관
제목 : 레이건 대통령 방한

대 : GAW -08142

주미대사가 8. 25. Holdridge 국무성 아. 테담당 차관보에게 대호
Newsweek 지 보도내용을 확인한바, 국무성은 아직 순방 계획
한바 없으나 명년중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동 차관보가 언급하였다함. (미북)

(82. 10. 31. 일반)

대고문서 외거 일반문서로
제관류 1987. 6. 30 서명 이/kt

제1차관보 (B)

양	부	연	담	과	국	차	장
고	비	년	당	장	장	관	관
재	과	82	26	장	장	관	관
		년	일	장	장	관	관
		10		장	장	관	관
		월		장	장	관	관
		26		장	장	관	관
		일		장	장	관	관

기후경

동영사

~~III 급 비밀~~
CONFIDENTIAL

82. 10. 31 일/kt

발신시간 :

검토편 (1987. 6. 30.)

최종결재	
기안자	이윤복

접수	과장

0010 11

관공 106

~~비밀~~
~~국무부~~
부

발신전보

번호: WCN-08171 일 시: 8.25
수신: 주 캐나다 대사 (참조: 북미과장)
발신: 장관대리
제목: 레이건 방한

연 : WCN-08171

주미대사가 8.25. Holdridge 차관보에게 ^연호 내용 확인한바,
국무성은 아직 순방을 계획한바 없으나 명년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국 순방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동 차관보가 언급 하였다함.
(미북-이운복)

양	북	연	담	과	국	차	장
고	미	년	당	장	장	관	관
제	과	8	25				
		월					
		일					

발신시간 :

최종결재	
기안자	이운복

접수	과장

0011/2

지급

의무부

중 별

발신전보

번호: WUS-1064 일 시: 12/100
 수신: 주미 대사
 발신: 장 관
 제목: 레이건 국동 순방

10.12자 조선일보 귀지특파원발 기사에 의하면, 10.11자
 W.P 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83년 국동 여행을 하게되면 한국과 일본이
 일정에 포함될 것이라는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하는 바,
 동 기사 전문 타전하고 교위 관리가 누구인지 ~~조기~~ ^{필요} 바람, 국무총
 및 ~~외교~~ ^{외무} ~~장관~~ ^{장관} ~~접촉~~, 동 기사 ~~중~~ ^의 순방상을 명기 보고 바람. (미복)
비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도

양	부	82	남	남	남	남	남	장
고	미	년	년	년	년	년	년	관
재	과	10	10	10	10	10	10	
		월	월	월	월	월	월	
		12	12	12	12	12	12	
		일	일	일	일	일	일	
			가	스	동	방		

발신시간 :

최종결재		접 수	과 장
기 안 자	김대익		

0012 13

"미대통령 내년 방한예정"(산케이 10.9자)

(서울 8일 로이타 공동)

1. 한국의 이범석 외무장관은 10.4. 레이건 미대통령이 내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동 외무장관에 의하면, 유엔총회에 참석차 방미중 뉴욕에서 "슐츠" 미국 방장관과 회담시 미국측으로부터 제시된 것으로서, 시기등에 대해서는 금후 외교 "베이스"를 통해 협의될 것임.
2. 동 외무장관은 또 영국방문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초청을 "대척" 수상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
-wk

원본

외 부 부

착신전보

번호 : USW-10113

일시 : 120855

종별 :

수신 : 장관

발신 : 주미 대사

제목 : 레이건 극동

순환설기	82	10	13	13	13	13	13	13	13
클									

대 : WUS-1064

W.P. 기사 별첨 타전하며, 관련사항 문의보고 하겠음

(미북)

IF THE PRESIDENT TAKES A FAR EASTERN TRIP IN 1983, A POSSIBILITY IN LATE WINTER OR EARLY SPRING. JAPAN WILL BE ON HIS ITINERARY,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DISCLOSED. BUT THEY SAY THIS TRIP, WHICH WOULD INCLUDE A VISIT TO KOREA, IS STILL IN THE DISCUSSION STATES.

THE KOREAN FOREIGN MINISTRY ANNOUNCED IN SEOUL LAST WEEK THAT REAGAN WOULD VISIT KOREA.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SUBSEQUENTLY THAT NO PROMISE ^AHS BEEN MADE BUT CONFIRMED THAT KOREA HAS ISSUED AN UNOFFICIAL INVITATION ^A AND THAT U.S. OFFICIALS HAVE TOLD KOREA THAT THE PRESIDENT WOULD LIKE TO MAKE THE TRIP SOMETIME.

THE FAR EASTERN TRIP, IF IT COMES, DEFINITELY WILL NOT INCLUDE A JOURNEY TO CHINA, THESE OFFICIALS SAY. THEY BELIEVE CHINESE LEADERS SHOULD COME TO WASHINGTON FIRST.

미주국 정차보 정문국 청와대 안 기 차관실. 기획실. p.w

82.10.13 09:25
외신 1과 통제관
0014

이선진

12/13

월 13

외 무 부

착신전보

번호 : USW-10115

일시 : 121450

종별 :

수신 : 장관

발신 : 주미 대사

제목 : 레이건 극동 순방설

연 : USW-10113

10

1. 국무성 한국과 BREER 부과장은 10.12. 당관 허승 참사관에게 연호 (W.P. 10.11. 자) LOU CANNON 기자 보도는 W.P. 가 서울발 REUTER 통신을 참고하여 추측 기사화 한데 불과하며 국무성 으로서는 아는바 없다고 밝혔음.

2. 이와 관련, 국무성 공식 입장을 밝힌 PRESS GUIDANCE 별첨 타전함.

(미북)

KOREA-PRESIDENTIAL TRAVEL

Q : ACCORDING TO A PRESS REPORT, PRESIDENT REAGAN WILL VISIT THE REPUBLIC OF KOREA NEXT YEAR. IS THAT TRUE ?

A : THERE ARE NO SPECIFIC PLANS AT THIS TIME TO VISIT THE REPUBLIC OF KOREA.

Q : WHAT ABOUT OTHER COUNTRIES ?

A : NO PLANS AT THIS TIME.

이선진
(국무성인기) X영리
국무성

미주국 차관실 정차보 정문국 청와대 안기 아주국 기왕신 W.P

82.10.13 09:33
외신 1과 통제관

과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이/하

외무부

착신전보

원본

관리번호 82-1381

번호: LAW -1043 일시: 151700 종별: 긴급

수신: 장관 (미북, 정문, 영재) 참조(사본): 주미대사직송필, 부장

발신: 주 라성총영사	공	미	년	당	당	관	국	9	8	10	10	12	56
제목: PAUL LAZALT	주	월	국	일	PNIO:								

네바다 주 출신 PAUL 상원의원으로 부터 중간 선거 유세차
라스베가스에 왔다는 연락 받고 본직은 그의 숙소인 프론티어
호텔에서 10.12. 11시반부터 30분간 다음 같이 면담하였음을 보고함.

1. 중간 선거유세로 수고가 많겠다고 한바 네바다 유카 뉴멕시코 등
몇개주를 돌아야 하므로 분주하다하며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과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 네바다 주지사도 도전과 하고
있다함.
2. 네바다 주에서는 동위원의 배려하에 한국 코포들이 잘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의 프한바 재미코포 현황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미국내 약
60만, 나성지역에만 20만이 있는데한국이 공화당의 레간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코포들도 공화당에 많은 호의를 갖는듯하다하고 한바
고맙다는 뜻을표하였음.
3. 동위원의 방한 계획을 물어본바 금년 여름 BAKER 상원원네
총무와 같이 가려던것이 국내사정으로 못갔으며 가능하면 명년봄이나
여름에 방한하고 싶다고함.

④ 레간 대통령의 극등 여행설에 관하여는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6월

수신시간:

검토편(1982. 6. 30.)

장관실	의전실	아프리카국	통상국	외연원									
차관실	아주국	국기국	영교국							담	당	주	무
정차보	미주국	조약국	외문국							예고문이 외거	일반문서도	재분류	1983
경차보	구주국	정문국	총무과							2. 7. 10	서명		
기획실	중동국	국경국	감사관실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0016

23

까지는 극동여행 여부를 결정할것이며 극동에 가면 한국에 반드시 들릴것이며 중공을 방문하면 대만도 들리게 될것이라 하였음. 본직이 대만에 들리면 중공을 자극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던바,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대만에 있으니 중공도 례간 대통령이 대만을 들리는 것을 이해 해야 할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그는 례간 대통령이 극동을 방문하면 자기도 그에 수행할것이며 대통령이 안 가면 단독으로라도 명년 봄이나 여름에 방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 하였음.

5. 례간 대통령 재출마 여부를 물었던바 명년 노뎡절까지는 태도를 밝힐것이라하면서 건강에 지장이 없는한 재출마 할것으로 생각한다 하였음.

6. 10월중에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모록코, 나이제리아, 기네, 가봉 5개국을 방문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귀로에 이스라엘에 들러 베긴 수상도 만날예정이라하기에 최근 전대통령과 하 7개국서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순방하셨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후 아세안 제국을 순방 하시어 제 3 세계의 국가의 일원인 동시에서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과 긴밀한유대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 제 3세계의 국가와 미국과의 포량 역할을 하시겠다는 전대통령 각하의 뜻 그리고 이러한 정치 철학에 입각하여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을 제외하셨음을 설명한바 그는 이를 환영하며 미국을 위하여도 좋은일이라 하였음. 본직은 이러한뜻은 이 외무장관으로부터도 귀국정부에 전달되었으나 례간 대통령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서 귀하 7개국서도 직접 례간 대통령 7개 전달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바 그러겠다고 하였음.

7. 편답을 통한 판단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 3 -

가. 제 3세계 국가와 미국과의 다리를 놓으시겠다는 대통령각하의 뜻과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 제외에 관하여 례간 대통령에게 동의원은 그나름대로 이를 전달할것으로 봄.

나. 례간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게 되면 대만도 방문할것으로 보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동 여행자체를 신중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다. 동 의원은 례간 대통령이 국동 여행을 하게 되면 동행하고 안하게되면 평년봄이나 여름에 방한하고자함. 끝.

예고: 83.6.30. 일반.

~~III~~ ~~급~~ ~~비~~ ~~밀~~
CONFIDENTIAL

0018

25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지난 8.30 자 뉴스 위크 저가 "레이건" 대통령이 내년중
중공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 일본등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한데 대해 미국무성에 확인한 바 있으나 국무성은 아직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11 자 워싱턴 포스트지도 "레이건"
대통령이 내년중 극동 여행을 하게되면 중공은 일정에서 제외되고
한국과 일본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국무성은 동 대통령
이 현재로서는 한국이나 극동 지역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극동방문이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미국이 태평양 세력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은 작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며 외무부장관 방미시에도 미국무장관을 통하여 조속한
방한실현을 희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동 대통령의 방한은 수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미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이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1982년 26
(82.10.16)

관리 번호 83-1302

대외비
발신 전 기록

WUS-11141

번호: WSF-1115 일 시: 151930 전보종별: _____

수신: 주 미국, 상항 대사. 총영사

발신: 장 관 (미북)

제목:

11.15자 국내신문에 의하면, Edwin Meese 백악관
 자문관은 83년중 레이건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없음을
 11.11일 상항에서 가진 대만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밝혔다고 하는 바
 회견내용을 파악 보고 바람. *정*

1983. 6. 30. 외교부에
 의치 인민문서로 제출함

0020

양고재	82년 11월 15일	북미과	기안자	과장		국장		차관	장관
			<i>이영희</i>	<i>정</i>					

발신시간:

외신과	접수자	과장
	<i>정</i>	

27

1. 레이건 美大統領의 訪韓에 關해서는 지난 8.30 日
뉴스 위크 雜誌가 "來年中 中韓訪問時 韓日과
日本을 訪問할지 모른다."고 報道한 바 있고 또
10.11 日 W.P. 紙는 "來年 봄 말 겨울에
韓日과 日本을 訪問할 것이며 中韓은 除外된 바 있다"고
報道한 바 있음.

2. 이러한 報道는 어디까지나 確鑿한 根據를 갖고
있다고 복수는 없으며 事實上 레이건 大統領의
訪韓問題가 具體적으로 協定되고 있는 것은
아름.

3. 레이건 大統領의 訪韓은 全大統領閣下 訪美時
共同聲明에서도 合意된 것으로 다만 그 時期
가 언제가 될지 未定인 것임. 우리로서는
修交 2 週年을 맞이하여 韓美關係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레이건 大統領의
訪韓이 가급적 早速히 이루어 지기를
希冀함.

관리번호 82-14911

III 급 비밀 CONFIDENTIAL

이성리 1/5

원본

외무부

착신전보
종별: 지급

번호: SFW-1112

일시: 151900

수신: 장관 사본: 주미대사

발신: 주상항 총영사

제목: 기자 회견 내용

자 보 관	미 주 국	선 원 일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대: WSF 1115

1. 대호 당지에서 대만계 기자들과 EDWIN MEESE 백악관 고문과의 기자회견 내용중 대호 아세아순 방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하는 내용은 기자들의 질문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레건대통령이 내년의 북경방문을 취소 하였다는데 하고 질문한데 대하여 MEESE 는 레건 대통령은 아직 까지 북경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것 밖에 없음.

(한국등 미국방문 계획 없음)

2. FAIRMONT 호텔에서 11.11 (목) 갓인 동 기자회견 내용은 중국어 신문인 세계일보 11.13 (토) 에 게재되었는바 동 FULL TEXT (비공식 번역) 는 11.16 (화) 타전 예정임.

예고: 83. 6. 30 일반

83. 6. 30 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 됨

미주국 정차보 정문국 청와대 안 기

차관실

PAGE 1

III 급 비밀 CONFIDENTIAL

82.11.16 15:30 외신 2과 통제관

0022

33
30